

형 법

2012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하던 A(50세, 남자)에게 보복하기로 하고, 전에 A의 승용차 운전기사로 있다가 해고된 후 A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던 乙을 소개받아 금 3,000만원을 주면서, “A를 죽지 않을 만큼 손 좀 봐줘라”고 乙에게 지시하였다. 이때 甲은 조직폭력배출신인 乙의 포악한 성격으로 보아 A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후 乙은 A의 허벅지를 칼로 20여회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乙은 A를 죽인 후 동거녀 丙을 만나 범행에 사용한 칼과 A의 혈흔이 묻은 자신의 옷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丙은 이를 건네 받아 야산에 묻었다. 다음 날 밤 10시 경 乙은 도피처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조직원으로 같이 지냈던 丁과 함께 P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던 B(30세, 여자)와 우연히 동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후 乙과 丁은 주점 화장실에서 B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한 잔 더하자며 B를 주점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인근 폐가로 끌고 가, 丁은 폐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반항을 억압한 뒤 B를 강간하였다. 이어 丁이 안으로 들어가 B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B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갑자기 여동생의 얼굴이 떠올라 행위를 중지하고 폐가 밖으로 나왔다. 甲, 乙, 丙, 丁의 죄책은? (50점)

제 2 문. 甲은 A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A정당의 대표인 K를 비방할 목적으로 K가 3개월전 외환관리법위반에 해당할만한 현금을 필리핀으로 가져가 그곳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P신문사 기자인 乙에게 제보하였다. 평소 甲과 친분이 있는 乙은 甲의 제보내용을 그대로 믿고 K의 출국사실만을 확인한 채, 이를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사로 정리하여 편집회의를 거쳐 신문기사화하였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30점)

제 3 문. 甲은 임금체불 등 회사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달 째 외국 여행을 하고 있는 사장 A에게 불만을 품고, 외국여행으로 비워둔 A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현관에 불을 놓고 도망갔다. 그러나 그 가옥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현관의 목재부분만 연소된 후 곧 스스로 소화되었다. 甲의 죄책은? (단,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함) (20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